

오늘 본문은 빌립보 성도들이 추구해야 할 마음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아마도 빌립보 교회 안에 약간의 분쟁과 다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서로의 생각이 다르고 입장이 달랐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항상 분쟁과 다툼이 있습니다. 이 모든 차이점을 하나로 묶기 위해 바울이 소개한 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곧 그분의 본성이며, 삶의 태도이고 방향성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만 있다면 그분의 삶을 닮게 될 것입니다.

사실상, 오늘 본문은 초기 교회 때 불려졌던 대표적 찬송시였습니다. 신학적으로 기독교론을 가장 간결하게 요약한 걸작품입니다. 동시에 성도들이 추구해야 할 삶의 이상향을 잘 제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 삶의 절대적 모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분은 본체(존재 자체)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모든 것을 비우고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셨으며,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최상의 희생을 보이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어떤 삶을 추구하게 될까요?

우리가 품어야 할 예수님의 마음은 사랑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겸손을 묘사하는데 집중하면서, 실질적인 의도는 그렇게 행하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개하려는 것이다. 그분의 마음을 품으면 겸손하게 행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면서 그 마음이 실제로 무엇인지는 말해주지 않습니다. 겸손으로 표현된 것은 태도나 행동에 대한 부분이지 마음이 아닙니다. 그보다 근본적인 것, 겸손의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으며, 그것을 본받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직접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성경에서 일관되게 성육신과 십자가를 이야기하며 덧붙이는 그리스도의 마음은 바로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16, 요한일서 3:16, 로마서 5:8)

예수님의 자발적인 낮춤과 비움은 오직 사랑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며,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랑을 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드림과 높임을 통해 표현됩니다.

오늘 본문의 겸손을 자신의 인격 수행으로 묵상하면 안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겸손을 자신을 비우고, 낮추는 행위로, 다른 사람을 높이고, 돌보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하나님과 이웃을 통해 표현되어야 합니다. 내가 가진 마음과 믿음이 하나님과 사람을 향해 어떻게 나타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것을 태도라고 합니다.

기독교적 비움은 하나님께 나눔과 이웃을 향한 나눔으로 표현되는 것이며, 낮춤은 하나님과 이웃을 높임을 통해 표현되어야 합니다.

자기 비하(X), 경배와 칭찬(O)

무소유, 가난(X), 드림과 나눔(O)

비우고 낮아진 우리를 하나님이 높이시고, 채우십니다.

사랑을 가지고, 자신을 비우고 낮추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가장 높이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마 23:12) 비울 때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채워집니다. 낮출 때 하나님이 세우시고 높이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 예수님의 마음인 사랑으로 행하는 낮춤과 비움은 진정한 기쁨이 됩니다.

암송

이번 주 외울 말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마태복음 11:29)

통독

이번 주 성경 통독

2/1(월)	2/2(화)	2/3(수)	2/4(목)	2/5(금)	2/6(토)	2/7(주일)
창 42-43장	창 44-46장	창 47-49장	창 50-출 3장	출 4-6장	출 7-9장	출 10-12장

QT

이번 주 QT 말씀

2/1(월)	2/2(화)	2/3(수)	2/4(목)	2/5(금)	2/6(토)	2/7(주일)
마 9:1-13	마 9:14-26	마 9:27-38	마 10:1-15	마 10:16-33	마 10:34-42	마 11:1-19

나눔

목장 나눔 문제

1. 오늘 설교를 통해 새롭게 깨닫거나 받은 은혜가 있으면 나누어 주세요.
2. 예수님의 마음에 있던 나를 향한 사랑을 묵상하며, 예수님을 높이는 감사 찬송을 고백해보세요.
3. 목장에 있는 형제, 자매를 칭찬하고 축복해 주세요.
4. 나를 비우시고, 낮추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신 경험을 나누어 주세요.